

KRIVET Issue Brief

2023

249호

발행인 류장수 | 발행일 2023년 1월 18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

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

- 특성화고 졸업생의 동일 지역 정착률이 마이스터고 졸업생보다 높았으며, 특성화고 졸업생과 마이스터고 졸업생 모두 수도권, 특히 경기 지역의 동일 지역 정착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음.
-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 양상은 권역 간, 시도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.
-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지역 이동성이 높고 주로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, 특성화고 졸업생은 동일 지역에 정착하는 경향을 보임.
- 고졸 취업자의 지역 정착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일자리의 질 제고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주

이 글은 '류지은 외(2022), 『2022년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사업 : 2. 마이스터고 모니터링 및 운영 협의회 지원』,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, 재정리함.

직업계고: 특성화고+마이스터고

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고졸 취업자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.

- 지속적인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, 이를 방지하고 지역의 인구구조를 개선하는 주요 대안으로 청년고용이 논의되고 있음.
- 고졸 취업자의 지역 정착은 지역산업의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 인구 전출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님.
- 이 글에서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이 졸업 이후 정착하는 지역에 대해 비교·분석함으로써 고졸 취업자의 지역 정착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 - 직업계고 졸업생이 졸업 후 3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 정착 상황을 분석하고자 함.

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연구원, 『한국교육고용패널 II (5차년도)』

- 분석 대상: 한국교육고용패널 II(이하 KEEP II)의 직업계 고등학교 2학년 코호트 5차(2021년) 자료 중 주된 일자리(임금근로자, 자영업자·고용주·특수형태근로종사자)를 가지고 있으며, 주된 일자리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본

〈표 1〉 표본 규모

고등학교 소재지	마이스터고 졸업생		특성화고 졸업생	
	명	%	명	%
서울	35	6.0	120	13.9
부산	44	7.5	46	5.3
대구	40	6.9	45	5.2
인천	35	6.0	80	9.2
광주	17	2.9	28	3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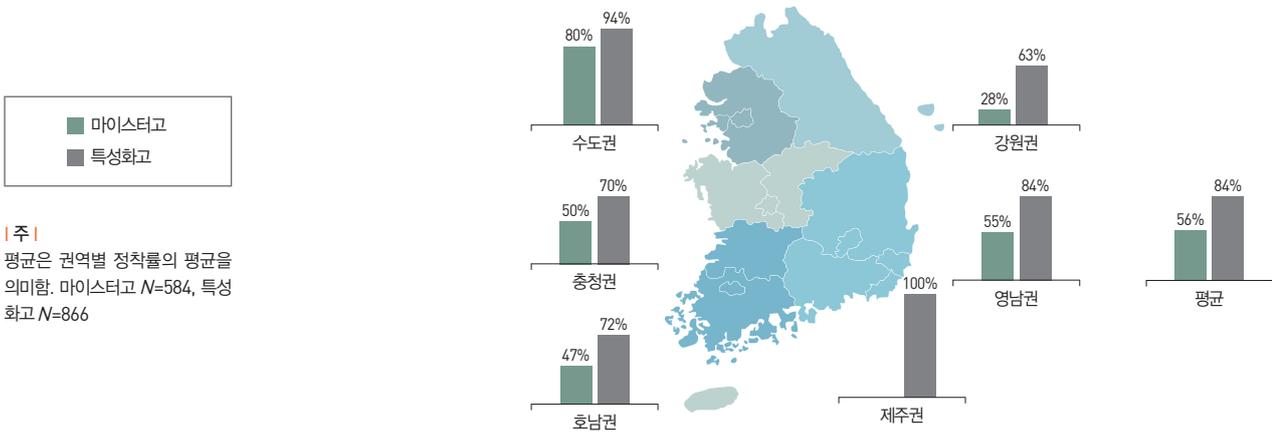


고등학교 소재지	마이스터고 졸업생		특성화고 졸업생	
	명	%	명	%
대전	44	7.5	17	2.0
울산	68	11.6	21	2.4
경기	38	6.5	156	18.0
강원	32	5.5	30	3.5
충북	31	5.3	47	5.4
충남/세종	49	8.4	41	4.7
전북	20	3.4	51	5.9
전남	42	7.2	48	5.5
경북	57	9.8	70	8.1
경남	32	5.5	46	5.3
제주	-	-	20	2.3
전체	584	100.0	866	100.0

02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 현황

특성화고 졸업생이 마이스터고 졸업생보다 동일 권역에 정착하는 경향을 보이며, 수도권 소재 직업계고 졸업생의 동일 권역 정착률이 다른 권역보다 높게 나타남.

- 모든 권역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이 마이스터고 졸업생보다 동일 권역 정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.
 -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경우 평균 동일 권역 정착률이 56%인 것에 반해 특성화고의 경우 84%로 높게 나타남.
-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모두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수도권의 동일 권역 정착률이 가장 높고, 강원권의 동일 권역 정착률이 가장 낮음.
 - 수도권 소재 직업계고 졸업생의 동일 권역 정착률은 마이스터고 80%, 특성화고 94%였으며, 두 번째로 동일 권역 정착률이 높은 곳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모두 영남권인 것으로 나타남.
 - 강원권의 경우 마이스터고 28%, 특성화고 63%로 가장 낮은 동일 권역 정착률을 보임.
 - 제주를 제외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생과 특성화고 졸업생의 동일 권역 정착률 차이는 강원권(35%p)에서 가장 크고 수도권(14%p)에서 가장 작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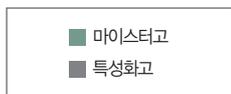


주 | 평균은 권역별 정착률의 평균을 의미함. 마이스터고 N=584, 특성화고 N=86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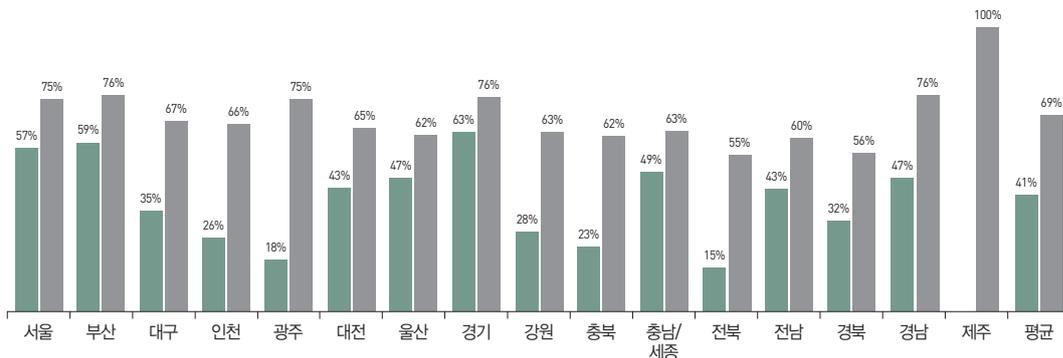
모든 시도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이 마이스터고 졸업생보다, 경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동일 지역 정착률이 더 높음.

- 모든 시도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의 동일 지역 정착률이 마이스터고 졸업생보다 높음.
 - 평균 동일 지역 정착률은 마이스터고 41%, 특성화고 69%로 나타남.
-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모두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경기 지역의 동일 지역 정착 비율이 가장 높고, 전북 지역의 동일 지역 정착률이 가장 낮음.
 -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동일 지역 정착률은 경기 63%, 부산 59%, 서울 57% 순으로 높고, 전북 15%, 광주 18%, 충북 23% 순으로 낮음.

-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, 제주를 제외하고 부산·경기·경남 76%, 서울·광주 75% 순으로 동일 지역 정착률이 높았고, 전북 55%, 경북 56%, 전남 60% 순으로 낮게 나타남.
- 제주를 제외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생과 특성화고 졸업생의 동일 지역 정착률 차이가 가장 큰 시도는 광주(57%p)였으며, 가장 작은 시도는 경기(13%p)인 것으로 확인됨.
- 직업계고 졸업생의 동일 권역 정착률과 동일 지역 정착률을 비교해보면, 권역 간, 그리고 동일 권역 내 시도 간의 지역 정착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.
 - 수도권의 경우 시도 간 이동이 있어도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, 영남권은 부산, 울산, 경남 자체의 동일 지역 정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.
 - 호남권의 경우, 전북과 광주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동일 지역 정착률은 낮은 데 비해 전남의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동일 지역 정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

주 | 평균은 권역별 정착률의 평균을 의미함. 마이스터고 N=584, 특성화고 N=866



[그림 2] 동일 시도 정착률

03 직업계고 졸업생의 시도별 이동성

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경우 경기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.

- 경기 지역은 부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정착지 2순위 내에 드는 것으로 확인됨.
 - 인천, 강원, 충북, 전북은 다른 지역임에도 경기 지역 정착 비율이 가장 높음.
 - 이는 경기도 내 대기업 일자리와 산업단지 조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.

〈표 2〉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시도별 이동성

주된 일자리 소재지		(단위: %)															
마이스터고 소재지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/세종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전체
서울	57.14	0	0	2.86	0	2.86	0	28.57	2.86	2.86	0	0	0	0	2.86	0	100
부산	2.27	59.09	0	0	0	0	2.27	9.09	2.27	0	4.55	2.27	0	6.82	11.36	0	100
대구	0	2.5	35.0	0	0	2.5	0	35.0	0	0	12.5	0	0	12.5	0	0	100
인천	14.29	8.57	0	25.71	0	0	0	34.29	2.86	5.71	2.86	0	2.86	0	0	2.86	100
광주	0	5.88	0	0	17.65	0	0	17.65	0	0	11.76	0	35.29	11.76	0	0	100
대전	11.36	0	0	0	0	43.18	2.27	25.0	0	9.09	4.55	2.27	0	2.27	0	0	100
울산	0	1.47	1.47	0	0	0	47.06	20.59	1.47	1.47	13.24	2.94	1.47	5.88	2.94	0	100
경기	7.89	0	0	5.26	0	0	7.89	63.16	7.89	2.63	2.63	0	0	0	2.63	0	100
강원	3.13	0	0	6.25	0	3.13	3.13	37.5	28.13	0	9.38	0	0	9.38	0	0	100
충북	9.68	0	0	0	0	0	0	54.84	6.45	22.58	6.45	0	0	0	0	0	100
충남/세종	2.04	2.04	0	0	0	0	0	30.61	0	8.16	48.98	4.08	0	4.08	0	0	100
전북	0	0	0	0	0	0	5.0	35.0	0	0	20.0	15.0	25.0	0	0	0	100
전남	2.38	2.38	0	0	2.38	0	0	28.57	0	0	11.9	2.38	42.86	2.38	4.76	0	100
경북	7.02	0	0	1.75	1.75	0	5.26	28.07	1.75	0	17.54	0	5.26	31.58	0	0	100
경남	3.13	0	0	0	0	0	0	15.63	3.13	6.25	15.63	0	6.25	3.13	46.88	0	100
전체	7.71	5.82	2.57	2.57	0.86	3.77	7.19	30.14	3.42	3.77	12.84	1.71	6.16	6.85	4.45	0.17	100

주 | 1) 음영: 동일 지역 정착, 굵은 테두리: 정착 1순위, 얇은 테두리: 정착 2순위
2) 정착 2순위 정의: 정착 비율이 두 번째로 높으면서 10% 이상인 지역

마이스터고 졸업생과 달리, 특성화고 졸업생은 동일 지역 정착의 경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.

-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특성화고 졸업생보다 지역 이동성이 높고 주로 경기도로의 이동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, 특성화고 졸업생은 고등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서 대부분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모든 시도에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압도적인 정착 1순위 지역인 것으로 확인됨.
- 또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권역 내에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.
 - 서울→경기, 인천→서울, 부산→경남, 울산→부산, 대구→경북, 대전→충남/세종 등 같은 권역 내에서 지역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.

〈표 3〉 특성화고 졸업생의 시도별 이동성

(단위: %)

주된 일자리 소재지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/세종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전체
서울	75.0	0	0.83	5.83	0	0.83	0	10.0	5.0	0.83	0.83	0	0	0.83	0	0	100
부산	0	76.09	0	0	0	0	0	8.7	0	0	0	0	2.17	0	13.04	0	100
대구	8.89	0	66.67	0	0	2.22	0	2.22	0	0	2.22	0	0	17.78	0	0	100
인천	18.75	0	0	66.25	1.25	0	0	12.5	0	0	1.25	0	0	0	0	0	100
광주	0	0	0	0	75.0	0	0	10.71	7.14	0	0	0	7.14	0	0	0	100
대전	0	0	0	0	0	64.71	0	5.88	11.76	0	17.65	0	0	0	0	0	100
울산	4.76	14.29	0	4.76	0	0	61.9	0	0	0	0	0	0	9.52	4.76	0	100
경기	16.03	0	0	3.21	0.64	0.64	0	75.64	0.64	0	2.56	0.64	0	0	0	0	100
강원	6.67	0	0	0	0	6.67	0	13.33	63.33	10	0	0	0	0	0	0	100
충북	12.77	0	0	4.26	0	2.13	0	10.64	4.26	61.7	0	0	0	2.13	2.13	0	100
충남/세종	4.88	0	2.44	0	0	7.32	0	9.76	4.88	2.44	63.41	0	0	2.44	2.44	0	100
전북	5.88	1.96	1.96	3.92	5.88	0	0	3.92	5.88	5.88	5.88	54.9	1.96	0	1.96	0	100
전남	10.42	0	0	0	10.42	0	0	12.5	0	0	0	4.17	60.42	0	2.08	0	100
경북	5.71	4.29	14.29	0	0	0	0	10.0	1.43	4.29	2.86	1.43	0	55.71	0	0	100
경남	4.35	4.35	2.17	0	0	0	2.17	0	0	0	4.35	0	2.17	4.35	76.09	0	100
제주	0	0	0	0	0	0	0	0	0	0	0	0	0	0	0	100	100
전체	18.36	5.08	5.08	8.08	3.58	2.31	1.62	20.44	4.39	4.62	4.97	3.7	3.93	6.24	5.31	2.31	100

1) 음영: 동일 지역 정착, 굵은 테두리: 정착 1순위, 얇은 테두리: 정착 2순위
 2) 정착 2순위 정의: 정착 비율이 두 번째로 높으면서 10% 이상인 지역

04 시사점

- 직업계고 졸업생은 수도권, 특히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하는 경향을 보이며, 같은 권역 내에서도 시도 간 정착 및 이동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.
-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 동일 지역에 정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,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음.
- 이러한 결과는 고졸 취업자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괜찮은 일자리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함.

최 수 현 |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
 류 지 은 |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
 윤 종 혁 |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